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한 齷 먹스이다 또 한 齷 먹스이다

곳 것거 壽를 놓고 ㉠ 無盡 無盡 먹스이다 이 몸 죽은 後에 지게 우회 거덕 덩허 줍푸리여 매여 가나 ㉡ 流蘇寶帳에 百夫 總麻 우리네나 어욱시 더욱시 덕기나무 白楊 솟희 가기곳 갈 짝시면 누른 히 흰 달과 굵은 눈 간은비며 쇠소리 ㅼ롬불 제 뉘 한 齷 먹자 ㅎ리

[A] ㅎ물며 무덤 우회 진납이 ㅼ롬힐 제 뉘웃즌들 ㉢ 밋
| ㅼ랴

0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대조적 시어를 병치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후에 겪게 될 허무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감각적 이미지를 나열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낙관적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
- 명령형 어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청자에게 삶의 유한성을 수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02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물리적 시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죽음의 공포를 상쇄하려는 화자의 욕망을 투영한다.
- 반복적 행위를 통해 현재의 향락이 중단 없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심리적 태도를 보여준다.
- 세속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여 무위자연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 타인과의 교감을 거부하고 오로지 내면의 평화만을 추구하려는 고립적 자아를 상징한다.
-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을 되살려 현재의 고통을 잊으려는 회상적 매개체로 기능한다.

03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는 죽음 이후의 화려한 장식물로, 생전의 신분이나 격식의 차이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 ㉢는 사후에 행하는 후회가 생전의 기회를 되돌릴 수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 ㉡는 '거덕'과 대조를 이루어 죽음이라는 결과 앞에서는 형식적 차이가 무의미함을 드러낸다.
- ㉢는 화자가 현재 술을 마셔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하기 위해 도입한 가정적 상황의 결과이다.
- ㉡는 죽음의 공간인 '白楊 솟'으로 가기 전에만 유효한 일시적인 위안의 수단으로 설정되어 있다.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철의 '장진주사'는 인생의 허무함을 바탕으로 현재의 즐거움을 긍정하는 '카르페 디엠(Carpe Diem)'적 정서를 담고 있다. 작가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황량하고 쓸쓸한 공간으로 묘사함으로써, 감각적 쾌락이 가능한 현재의 소중함을 부각한다. 특히 죽음의 필연성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무력감을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해소하려는 태도는 당시 사대부들의 풍류 문화와 결합하여 독특한 미의식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쾌락 추구에 그치지 않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내포하기도 한다.

- '곳 것거 壽를 놓고' 마시자는 제안은 〈보기〉에서 언급한 현재의 감각적 즐거움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겠군.
- '거덕'과 '流蘇寶帳'의 대비를 통해 죽음의 방식에 상관없이 도달하는 허무를 보여주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성찰이겠군.
- '누른 히 흰 달'이 비치는 무덤가의 풍경은 〈보기〉의 '황량하고 쓸쓸한 공간'으로서 현재의 삶과 대조되는 배경으로 기능하겠군.
- '뉘 한 齷 먹자 ㅎ리'라는 탄식은 죽음 이후에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을 통해 현재의 풍류적 교감을 강조하는 것이겠군.
- '진납이 ㅼ롬힐 제' 느끼는 감정은 죽음의 무력감을 술로 극복해낸 화자의 승리주의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겠군.

05

윗글의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도덕적 수양을 통해 내면의 완성을 기한다.
- ② 세속의 영욕을 뒤로하고 산림에 은거하며 안빈낙도의 삶을 실천한다.
- ③ 인생의 덧없음을 직시하고 주어진 현재의 즐거움에 몰입하여 향유한다.
- ④ 미래에 닥칠 고난을 대비하여 현재의 욕망을 절제하고 인내를 수련한다.
- 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며 대의명분을 우선시한다.

06

[A]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기회가 사라진 뒤에 느끼는 회한의 정서
- ② 절대적 고립 상태에서 느끼는 적막감
- ③ 세월의 무상함에 대한 실존적 고뇌
- ④ 타인과의 단절로 인한 소외의 공포
- ⑤ 자연의 영원함에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

07

윗글의 시상 전개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반부에서는 술을 마시는 구체적인 행위와 즐거움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중반부에서는 죽음 이후의 이동 과정과 매장 장소의 쓸쓸함을 묘사하고 있다.
- ③ '거덕'과 '流蘇寶帳'의 나열을 통해 사후 세계에서 유지되는 신분 질서를 긍정하고 있다.
- ④ 후반부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현재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음을 설의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재(음주) - 미래(죽음) - 사후(허무)'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08

윗글에 사용된 수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의지를 집약하고 있다.
- ②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슬픈 감정을 객관화된 대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 ③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의 비극적 상황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대구적 구조를 사용하여 인간 삶의 가변성과 자연의 영원성을 대조하고 있다.

09

윗글의 화자가 청자에게 건네는 말하기 방식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과거 행적을 비판하며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 ② 보편적인 진리를 근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제안이 타당함을 설득하고 있다.
- ③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공유하며 청자의 동정심을 유발하려 하고 있다.
- ④ 미래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⑤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을 통해 청자의 반성을 유도하고 있다.

10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술을 마시는 횃수를 꽃을 꺾어 표시하며 풍류를 즐기려 한다.
- ② 죽음 이후에는 붉은 눈과 가느다란 비가 내리는 쓸쓸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
- ③ 화자는 죽어서 지계에 실려 가든 상여를 타고 가든 결국 같은 곳에 이른다고 본다.
- ④ '쇠소리 바람'이 부는 상황은 화자가 사후에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간절한 욕망을 상징한다.
- ⑤ '잔나비'의 소리는 사후의 적막함과 대비되어 화자의 후회를 심화시키는 배경이 된다.

11

윗글에서 '술'과 대조적인 의미적 층위를 형성하는 시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總麻(시마)
- ② 白楊(백양)
- ③ 쇠소리
- ④ 진남이
- ⑤ 壽(수)

12

〈보기〉와 윗글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산촌에 눈이 쌓이니 길을 찾기 어렵구나. / 문을 열지 마라,
나를 찾을 이 누가 있겠느냐. / 밤중의 한 조각 밝은 달만이
나의 벗인가 하노라. - 신희의 시조

이 시조는 세속과 단절된 공간에서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외부와의 소통이 끊긴 고립된 상황을 오히려 내면의 평화를 얻는 계기로 삼고 있다.

- ① 윗글의 '뉘 한 쯤 먹자 흐리'와 〈보기〉의 '나를 찾을 이 누가 있겠느냐'는 모두 타인과의 단절을 슬퍼하는 화자의 고독감을 드러낸다.
- ② 윗글의 '흰 달'과 〈보기〉의 '밝은 달'은 모두 화자의 흥취를 돋우며 현재의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 ③ 윗글은 사후의 고립을 피해야 할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하는 반면, 〈보기〉는 현재의 고립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긍정적 상황으로 수용한다.
- ④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자연물의 소리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해소하고 절대자와의 교감을 시도하고 있다.
- ⑤ 윗글은 인위적인 향락을 통해 허무를 극복하려 하고, 〈보기〉는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사회적 명예를 회복하려 한다.

13

윗글의 '꽃(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명의 유한성을 상징하며 화자에게 죽음의 공포를 환기하는 매개물이다.
- ② 술을 마시는 행위에 질서와 유희성을 부여하여 풍류의 격조를 높여준다.
- ③ 꺾이는 행위를 통해 훼손되는 자연의 가치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드러낸다.
- ④ 신분 상승에 대한 화자의 숨겨진 욕망을 화려한 이미지를 통해 대변한다.
- ⑤ 사후 세계에서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것이라는 희망을 상징한다.

14

윗글의 전반적인 어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답답하고 관조적인 어조로 삶의 비애를 묵묵히 수용하고 있다.
- ② 걱정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
- ③ 애상적이고 영탄적인 어조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 애도하고 있다.
- ④ 호탕하고 낙천적인 어조로 현재의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 ⑤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어조로 타락한 세태를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

15

밑줄 친 ⑥의 문맥적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함을 암시한다.
- ② 죽음이라는 절대적 장벽 앞에서 인간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감을 뜻한다.
- ③ 타인의 조언이 화자의 결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함을 나타낸다.
- ④ 현재의 즐거움이 미래의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경고한다.
- ⑤ 자신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장진주사 내신 문제지 · 정답 및 해설

0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 ③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후에 겪게 될 허무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의 전반적인 수사 기법과 그에 따른 화자의 정서적 지향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늪 한 웅 먹자 허리', '늪웃흔들 밋츠랴' 등의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죽음 이후에는 아무도 술을 권하지 않고 후회해도 소용 없다는 허무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상적 상황(죽음 이후)은 설정되었으나,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삶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다.
 ② 거적에 덮여 나가는 것과 유소보장에 싸여 나가는 것이 대조를 이루지만, 이는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죽음의 평등성과 허무를 보여주는 장치이다.
 ④ '누런 흰 달' 등 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이는 낙관적 세계관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쓸쓸한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⑤ '먹수이다'는 청유형 어조이며, 명령형 어조를 반복하여 권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 ② 반복적 행위를 통해 현재의 향락이 중단 없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심리적 태도를 보여준다.

[출제의도]

'無盡(무진)'이라는 시어의 문맥적 의미와 화자의 태도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② ㉠ '無盡'은 다함이 없음을 뜻하며, '한 잔 먹사이다'라는 반복적 권유와 결합하여 현재의 즐거움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향락적 태도를 집약한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죽음의 공포를 물리적 시간의 연속성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죽음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현재에 집중한다.
 ③ 술을 마시는 행위는 풍류적 즐거움이지, 세속적 가치로부터의 완전한 탈피나 무위자연의 도덕적 경지와는 거리가 있다.
 ④ '먹수이다'라는 청유형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인과의 교감을 전제로 한 풍류를 즐기고 있다.
 ⑤ ㉡은 미래의 지속을 바라는 표현이지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가 아니다.

03 소재의 기능 분석

정답: ⑤ ㉢는 죽음의 공간인 '白楊 숲'으로 가기 전에만 유호한 일시적인 위안의 수단으로 설정되어 있다.

[출제의도]

시어의 대조적 기능과 문맥적 함의를 세밀하게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⑤ ㉢ '流蘇寶帳(유소보장)'은 화려한 상여의 장식이지만, 화자는 이것이 있든 없든(거적에 덮여 가든) 결국 죽음의 공간으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를 '일시적 위안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지문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는 화려한 장식으로, 초라한 '거적'과 대비되어 생전의 사회적 격식을 상징한다.
 ② ㉠ '밋츠랴'는 죽은 뒤에 뉘우쳐도 소용없다는 뜻으로, 사후 후회의 무용성을 강조한다.
 ③ 지문에서 '거적 덮혀... 가나 流蘇寶帳에... 우리네나'는 결국 같은 죽음의 길임을 보여주어 차별의 무의미함을 드러낸다.
 ④ 죽은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으므로(㉢), 지금 술을 마셔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04 [보기] 종합 감상

정답: ⑤ '진남이 푸름혈 제' 느끼는 감정은 죽음의 무력감을 술로 극복해낸 화자의 승리주의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겠군.

[출제의도]

비평적 관점을 바탕으로 작품의 세부 구절을 심층적으로 감상한다.

[정답 풀이]

- ⑤ '잔나비 휘파람 불 때'는 화자가 죽은 뒤의 적막한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이는 죽음의 허무와 무력감을 극대화하는 장면이지 화자의 승리주의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 ① 꽃을 꺾어 잔 수를 세며 마시는 것은 현재의 즐거움을 시각화하고 즐기려는 태도이다.
 ② 죽음의 형식(거적 vs 유소보장)이 결과(백양 숲)를 바꾸지 못한다는 인식은 삶의 유한성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③ 무덤가의 차가운 자연물들은 생동감 넘치는 현재의 술자리와 대비되어 허무를 강조한다.
 ④ 사후에는 술 권할 사람이 없다는 가정은 역설적으로 지금 함께 술 마시는 행위의 소중함을 드러낸다.

05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 ③ 인생의 덧없음을 직시하고 주어진 현재의 즐거움에 몰입하여 향유한다.

[출제의도]

화자의 핵심적인 가치관과 삶의 지향점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지문의 화자는 죽음 이후의 허무를 강조하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술을 마시며 즐겁게 놀아야 한다는 '쾌락적 현재주의'를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① 도덕적 수양이나 내면의 완성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안빈낙도는 가난함 속에서도 편안함을 찾는 도덕적 태도이나, 화자는 술과 꽃을 즐기는 풍류적 쾌락을 추구한다.
④ 화자는 현재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껏 발산할 것을 권유한다.
⑤ 대의명분이나 공동체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실존적 즐거움에 집중하고 있다.

06 정서적 맥락 추론

정답: ④ 타인과의 단절로 인한 소외의 공포

[출제의도]

특정 구간의 정서적 함의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④ [A]에서 화자는 죽음 이후의 단절을 말하고 있으나,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소외의 공포'나 심리적 불안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죽음의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이다.

[오답 풀이]

- ① '늪웃춘들 밋즈랴'에서 사후 후회의 무용함과 회한이 나타난다.
② '잔나비 휘파람 불 제'는 아무도 없는 무덤가의 적막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죽음 이후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인생무상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⑤ 인간은 죽어 무덤에 갇히지만 자연(잔나비, 바람)은 지속된다는 대비가 숨어 있다.

07 시적 구성 분석

정답: ③ '거덕'과 '流蘇寶帳'의 나열을 통해 사후 세계에서도 유지되는 신분 질서를 긍정하고 있다.

[출제의도]

시상의 흐름과 소재의 기능을 구조적으로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거덕'과 '유소보장'은 죽음의 길로 가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지만, 화자는 결국 '백양 숲'에 가면 모두가 똑같이 쓸쓸한 처지가 됨을 말하며 신분 질서의 무의미함을 드러낸다.

[오답 풀이]

- ① '한 잔 먹사이다', '꽃 꺾어 수를 놓고' 등 구체적 음주 행위가 나타난다.
② 지계에 매여 가거나 상여를 타고 가는 과정, 그리고 백양 숲이라는 공간이 묘사된다.
④ '늪 한 잔 먹자 하리', '늪웃춘들 미치랴' 등을 통해 사후의 불가능성을 강조한다.

- ⑤ 현재의 흥취에서 시작하여 죽음의 과정과 그 이후의 허무로 시상이 전개된다.

08 표현 기법의 효과

정답: ①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의지를 집약하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에 사용된 주요 수사 기법과 그 효과를 정확히 인지한다.

[정답 풀이]

- ① '한 蠶 먹소이다', '無盡 無盡' 등 동일한 시어와 문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술을 마시고자 하는 화자의 강렬한 욕구와 의지를 강조한다.

[오답 풀이]

- ② 잔나비가 휘파람을 부는 것은 배경 묘사일 뿐, 화자의 감정을 의인화하여 전이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누른 해 흰 달' 등 색채어가 나타나지만, 이는 사후의 쓸쓸함을 묘사할 뿐 현실의 비극과 대비되는 장치는 아니다.
④ 윗글에는 자신의 처지를 반대로 말하는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대구적 구조('거덕 덩허... 가나 流蘇寶帳에... 우리네나')는 나타나지만, 이것이 자연의 영원성을 대조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09 말하기 방식 분석

정답: ② 보편적인 진리를 근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제안이 타당함을 설득하고 있다.

[출제의도]

화자의 발화 전략과 논리적 구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② 화자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와 '죽은 뒤에는 즐길 수 없다'는 보편적 진리(인생무상)를 근거로 들어, 지금 술을 마시는 자신의 제안을 정당화하고 설득한다.

[오답 풀이]

- ① 상대방의 과거를 비판하는 내용은 지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③ 화자는 즐거움을 누리하고자 할 뿐,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거나 동정을 구하지 않는다.
④ 화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확실한 미래를 강조하며 현재의 향락을 주장한다.
⑤ 설의적 표현은 있으나 이를 통해 청자의 도덕적 반성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

10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④ '쇠소리 바람'이 부는 상황은 화자가 사후에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 간절한 욕망을 상징한다.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적인 묘사와 그 의미를 사실적으로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④ '쇠소리 바람'이 불 때 '늪 한 잔 먹자 하리'라고 한 것은, 그런 황량한 죽음의 상황에서는 아무도 술을 권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지 화자의 욕망이 실현되는 상황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꽃 것저 壽를 놓고'는 마신 술의 잔 수를 꽃으로 세는 운치 있는 음주법이다.
 ② '붉은 눈 간은비'는 죽음 이후의 공간인 백양 숲의 황량한 풍경이다.
 ③ 거적에 덮여 가나 유소보장에 가나 결국 '백양 숲'으로 가는 것은 동일하다.
 ⑤ 잔나비 휘파람 소리는 죽은 뒤의 쓸쓸함을 더하며, 그때 늪 우쳐도 소용없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11 시어의 문맥적 대비

정답: ⑤ 壽(수)

[출제의도]

시어들 간의 관계를 통해 작품의 핵심 대립 구조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⑤ '壽(수)'는 술잔의 수를 의미하며, 술을 마시는 행위와 결합하여 현재의 즐거움을 구체화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죽음과 허무를 상징하는 다른 시어들과 달리 '술'과 같은 층위에 있다.

[오답 풀이]

- ① '總麻(시마)'는 상복을 의미하며 죽음과 슬픔의 층위에 있다.
 ② '白楊(백양)'은 무덤가에 심는 나무로 죽음의 공간을 상징한다.
 ③ '쇠소리'는 사후의 황량한 바람 소리로 현재의 흥취와 대조된다.
 ④ '진남اپ'은 무덤가의 적막을 깨는 쓸쓸한 존재로 사후의 허무를 부각한다.

12 [보기] 비교 감상

정답: ③ 윗글은 사후의 고립을 피해야 할 부정적 상황으로 인식하는 반면, <보기>는 현재의 고립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긍정적 상황으로 수용한다.

[출제의도]

두 작품의 고립에 대한 태도 차이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③ 윗글의 화자는 죽음 이후의 고립(아무도 술 권하지 않음)을 허무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으로 설정하여 현재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반면, <보기>의 화자는 눈 덮인 산촌의 고립을 달과 벗하는 평화로운 상황으로 긍정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윗글은 사후의 단절을 경계하는 것이고, <보기>는 현재의 단절을 즐기는 것이므로 슬픔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
 ② 윗글의 '흰 달'은 무덤가의 차가운 배경일 뿐 흥취를 돋우는 소재가 아니다.
 ④ 두 작품 모두 절대자와의 교감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⑤ <보기>의 화자는 사회적 명예 회복에 관심이 없으며 자연 속의 안분지족을 추구한다.

13 비유적 의미 추론

정답: ② 술을 마시는 행위에 질서와 유희성을 부여하여 풍류의 격조를 높여준다.

[출제의도]

소재가 작품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을 통합적으로 추론한다.

[정답 풀이]

- ② 꽃을 꺾어 잔 수를 세며 마시는 행위는 단순한 폭음이 아니라, 규칙(질서)과 재미(유희)가 결합된 사대부 특유의 우아한 풍류 문화를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① 꽃은 여기서 즐거움의 도구이지 공포의 환기물이 아니다.
 ③ 꽃을 꺾는 것은 풍류의 수단일 뿐 자연 훼손에 대한 연민과는 무관하다.
 ④ 꽃의 화려함과 신분 상승 욕망을 연결할 근거가 지문에는 없다.
 ⑤ 지문은 사후의 허무를 강조하므로 사후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는다.

14 어조와 태도 분석

정답: ④ 호탕하고 낙천적인 어조로 현재의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목소리의 톤과 태도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④ '한 잔 먹자이다'라는 반복적 권유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현재를 즐기려는 태도는 호탕하고 낙천적인 풍류객의 어조를 형성한다.

[오답 풀이]

- ① 죽음의 허무를 말하지만 이를 담담하게 관조하기보다는 술로 잊으려는 적극적 태도를 보인다.
 ②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사후의 풍경은 애상적일 수 있으나, 화자의 주된 목소리는 현재의 즐거움을 향해 있다.
 ⑤ 세태 비판의 성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15 어휘의 문맥적 뉘앙스

정답: ② 죽음이라는 절대적 장벽 앞에서 인간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감을 뜻한다.

[출제의도]

'미치랴'라는 서술어의 문맥적 함의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② ⑥ '밋츠랴'는 '소용이 있겠는가(미치겠는가)'라는 뜻으로, 죽은 뒤에 아무리 후회해도 살아생전의 즐거움을 다시 누릴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① 기회가 충분하다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이다.
 ③ 타인의 조언에 대한 맥락이 아니다.
 ④ 미래의 보상에 대한 논의는 지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
- ⑤ 소통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시간의 비가역성에 대한 인식이다.